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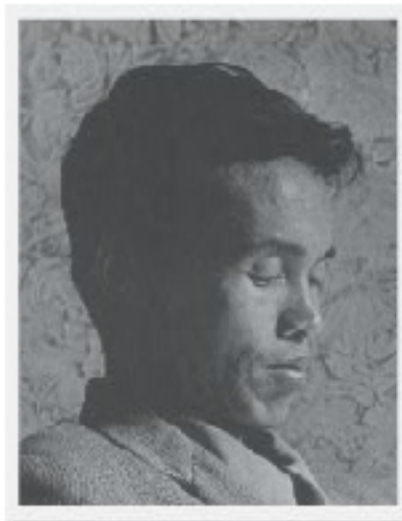


1940-1960년대, 이 시기 문학은 민족문학이 확립-확장되는 시기이다.

조국 광복과 남북 분단 그리고 전쟁의 비극과 전후 복구의 시대로
식민지 시대문학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 문학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제기된 때이다.

이 시기에 충북 대표문인으로 사실주의 동시의 새 지평을 연 시인 권태응과
풍부한 우의성(寓意性)과 상징성의 작가 염재만 그리고
거침없는 풍자와 해학의 달인 신동문이 있다.

사회에 대한 항거와 참여의 정신을 실현한 작가 신동문



조국 광복에서 6·25, 그리고 4·19혁명이 진행되는 질곡의 시대, 신춘문예의 부활과 함께 시대와 역사를 향한 뜨거운 언어들이 시의 새 모습으로 솟구치고 있을 때, 그 대열에 앞장섰던 시인이 바로 신동문이다. 1956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풍선기」가 당선되자 신동문은 그 해 시집 『풍선과 제3포복』을 발표하여 시단에 새 물결을 일으킨다.

4·19를 뜨겁게 노래한 그의 시 「아! 신화같이 다비데 군(群)들」은 4·19 혁명시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신동문은 사회참여인으로서 거침없는 풍자와 해학·역설의 시 세계를 펼쳐 보인다.

『새벽』지의 주간으로, 친구문화사 주간으로, '창작과 비평' 대표로 글쓰기의 현장에 있었던 그는 독재가 가시화되는 1975년 이후 끝내 붓을 꺾고 침묵을 지키다가 1993년 가을에 철허암으로 이승과의 인연을 끊었다. 신동문은 말년에 충북 단양에서 포도 농장을 하면서 이웃들에게 무료로 의술을 베풀어 '신바이처'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다.

01 신동문의 출생과 청년기 : 1927 - 1950 / 1-24세

신동문은 수양개만큼이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다. 동문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 7월 20일,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산덕리에서 아버지 신재한(辛在漢)과 어머니 김대련(金大鍊) 사이의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산덕리는 마을 뒤편의 야산이 마을을 아늑하게 품어줄 만큼 덕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본관은 영산(靈山). 본명은 건호(建湖)이며 동문(東門)은 필명이다. 신동문이 젖 땠 무렵인 두 살 때 아버지 신재한이 병으로 사망했다. 동문은 아버지에 관한 추억을 전혀 갖지 못하고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채 평생을 지냈던 것이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것은 동문의 성장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다섯 살 때 두 살 터울의 누이동생과 함께 어머니 손에 이끌려 청주시 석교동으로 이사했다.

초등학교와 중등 과정을 마치고 20세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과에 입학한 후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발탁된다. 1948년에 런던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으나 늑막염의 발병으로 그해 8월 청주 도립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시절은 일 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난다.



신동문의 출생 마을

신동문이 태어난 충북 청원군 문의면 산덕리의 금강 줄기

02 본격적인 문학 활동의 시작 : 1951 - 1955 / 25-29세

신동문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가을, 당시 스물 다섯의 나이에 공군에 입대하여 참전 병사가 되었다. 복무기간 36개월 중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3분의 1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간은 출근 병상에서 보냈다. 사실상 군대 생활 3년은 적과의 싸움이 아닌 자신의 지병과 싸운 시간이었다. 이후 3년 만에 제대한 후 『충북일보』, 『사회일보』의 논설위원과 『새벽』 편집장, 『사상계』 편집장, 『경향신문』 기획위원으로 지내다가 1953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와 이듬해인 1954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가작으로 당선됨으로써 본격적인 시인의 삶이 시작되었다.

신동문은 1955년에 『한국일보』에서 시 「봄 강물」, 『동아일보』에는 연작시 「풍선기(風船期)」 중 1편이 가작으로 입상하였고 제1회 충북문학상, 자유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풍선기(風船期)」가 당선되어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하였고, 같은 해 처녀 시집 『풍선(風船)과 제3포복(第三匍匐)』을 간행하였다. 이 시집에는 공군에 복무하면서 틈틈이 써 모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시 「수정화병(水晶花瓶)에 꽂힌 현대시」, 「조건사(條件史)」, 「조건사초(條件史抄)」, 「무제(無題)」 등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후 1959년에는 충북문학인회를 창립하여 민병산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그의 초기 시는 전쟁의 파괴적인 요소와 전후 사회의 황폐상을 잘 드러내어 1950년대 후반에 큰 관심을 받았다.

03 현대사의 격랑에서 겪은 충격과 절망 : 1956 - 1974 / 30-48세

신동문은 34세인 1960년에 종합 교양지 『새벽』 편집장을 역임하고 3년 후에는 경향신문사 특집부장과 기획위원을 역임하였다. 이후 제1회 충북문학상과 제1회 도 문화상을 받았고, 방송에 출연하며 언론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를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그의 시는 비판적 지성을 바탕으로 자기 시대의 삶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풍자적으로 표현하는데 뛰어났다. 다분히 현실 참여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른바 ‘양가주망의 시인’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한편 1963년에는 동인지 『현실』을 주재하였고, 그 해 남기정(南基貞)과 혼인하여 이듬해 장녀 수정(秀晶)을 낳았다. 2년 후에 친구문화사 편집과 기획위원 및 주간을 담당하였다. 신동문이 41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같은 해 차녀 수진(秀眞)이 출생하였다. 1969년에는 문학 계간지 『창작과 비평』 대표 등을 역임하며 언론 및 출판계에 종사했다.



출판업계에 종사한 신동문

(좌) 두 번째 시집 노숙 출판기념회에서 문인들

※ 양가주망 - 작가나 문학 등의 사회문제에 자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04 절필과 고향으로의 낙향 : 1975 - 1993 / 49-67세

1975년, 당시 49세였던 신동문은 대표작을 맡고 있던 창작과 비평사에서 논객 리영희가 쓴 베트남 전쟁 기사가 문제가 되어 긴급조치 9호에 저촉되는 바람에 남산에 있는 중앙 정보부에 연행,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난 이후 더 이상의 작품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로 낙향하여 농장을 경영하며 소박한 전원 생활을 즐겼는데, 신동문은 특히 바둑을 좋아하였다.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던 그는 1993년 9월 30일 67세로 지병인 담도암으로 사망했다.



고향으로의 낙향

신동문의 충북 단양 수양개 농장에 지은집과 청주시 가경동 별산공원에 세워져 있는신동문 시비

작가연보

- 1927 충북 청원군 문의면 태어남
- 1929 아버지 신재한(新在漢) 별세.
- 1932 어머니 김대련(金大漣)과 청주시 석교동 52번지로 이사.
- 1935 청주시 영정공립국민학교(현 주성초등학교) 입학. 결핵으로 결석이 잦음.
- 1941 영정공립국민학교 졸업.
- 1942 영정공립학교(중등 과정) 입학. 결핵으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
- 1946 영정공립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 입학했으나 가난과 결핵으로 곧 중퇴. 신흥대학(현 경희대학교)에 수영 특기생으로 입학.
- 1947 1948년 런던올림픽 수영 후보 선수로 선발됨,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영국에 유학할 뜻을 세움.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해 올림픽 참가와 유학을 포기.
- 1951 국민방위군에 입대했다가 탈출. 공군에 자원입대해 제주비행장에서 근무. 군복무 중 장편 연작시 '풍선기(風船期)」를 씀.
- 1952 경남 사천 비행장으로 군 복무지를 옮김. 결핵으로 마산 공군 요양소에 입원.
- 1953 공군병원 본원으로 옮겨 결핵 치료.
- 1954 36개월 만기 제대 후 청주에 거주하며 시작에 전념

작가연보

- 1955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봄 강물」이 가작으로 입상.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풍선기」 중 한 편이 가작으로 입상. 제 1회 충북문학상 수상. 결핵으로 충북 도립병원에 입원과 퇴원 반복. 필명 '신동문(辛東門)'을 쓰기 시작.
- 1956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풍선기」 당선. 충북 고교생들의 문학 동아리 '푸른 문(門) 문학 동호회' 고문을 맡음. 시집 「풍선과 제3포복」(충북문화사) 출판.
- 1957 충북문화인총연합회 창립위원. 「충북신보」(현 『충청일보』) 신춘문예 심사위원.
- 1959 충북문화상 예술부문 수상.
- 1960 4.19시위 배후로 몰려 서울로 도피해 정착. 시 「아!신화같이 다비데군들」 발표. 「새벽」 편집장으로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발굴해 전재.
- 1962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수양개 마을 부근의 임야 매입. 그 이후 서울과 수양개를 오가며 임야를 농장으로 개간하기 시작.
- 1963 『경향신문』 특집부장 겸 기획위원으로 근무. 남기정(南基貞)과 결혼.
- 1964 장녀 수정(秀晶) 출생. 수양개 임야를 농장으로 개간하기 시작. 「경향신문」 필화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음.
경향신문사 퇴사
- 1965 신구문화사 주간으로 『세계전후문학전집』, 『세계의 인간상』, 『한국의 인간상』, 『현대한국문학전집』, 『현대세계문학전집』 등 간행. 「세대」 상임 편집 위원으로 이병주의 「소설 알렉산드리아」 발굴. 시 「모작 조감도」 발표.
- 1966 장남 남수(南秀) 출생. 번역서 「요가」(민음사) 펴냄.

작가연보

- 1967 시 「내 노동으로」 발표.
- 1968 어머니 별세. 차녀 수진(秀眞) 출생.
- 1969 계간지 『창작과 비평』 대표 맡음.
- 1970 수양개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장에서 누에치기를 시작.
- 1973 『만해 한용운』 전집 (신구문화사) 출간에 편찬위원으로 참여.
- 1974 『창작과 비평』을 통해 ‘만해 문학상’ 제정.
- 1975 『창작과 비평』필화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고 사흘 만에 석방. 그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음. 계간지 『창작과 비평』 퇴사. 수양개의 임야를 개간해 만든 농장으로 이주. 과수원 농사 시작.
- 1976 농장에 침술원을 차려 서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무료 침술 봉사 시작.
- 1980 농장에서 절소 목장 시작.
- 1983 절소 목장 끝냄. 수양개 주민들이 충주댐 건설로 마을을 떠나기 시작.
- 1985 충주댐 완공으로 마을 주민들 이주 완료. 일손 부족으로 농장일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
- 1992 5월에 담도암 진단 받음. 6월에 시 창작, 필화, 침 시술, 농장 생활 등 삶의 역정에 대해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던 김판수에게 소상히 밝힘. 노동과 침술 중단.

작가연보

- 1993** 9월 29일 담도암으로 운명. 서약에 따라 각막과 장기 기증.
- 1995** 6월 문우, 『동양일보』, 단양문화원이 단양읍 소금정 공원에 시비 건립.
- 2004** 유고 시집 「내 노동으로」와 유고 산문집 『행동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솔 출판사) 출판.
- 2005** 9월 청주문화원에서 청주시 발산공원에 시비 건립.